

# 진로인식을 위한 미술과 진로 융합 수업 -동네직업지도 그리기를 통하여-

김지현<sup>1</sup>, 허윤정<sup>2\*</sup>

<sup>1</sup>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 <sup>2</sup>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 Art and Career Convergence Class for Career Recognition - Through drawing a Neighborhood Job Map -

Ji-Hyun Kim<sup>1</sup>, Yoon Jung Huh<sup>2\*</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Arts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Master

<sup>2</sup>College of Arts, School of Fine Arts,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진로교육과 미술교육을 융합하여 동네직업지도 그리기를 활용한 진로교육 수업지도안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진로인식을 확장하고 하고자 하였다. 수업은 초등학교 5·6학년 16명을 대상으로 3차시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사후 질문 및 학생 작품과 인터뷰를 통해 직업인식의 하위 개념인 직업가치관과 직업편견, 자기이해와 진로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동네직업지도를 제작 수업을 통해 직업인식이 확장되었다. 직업의 필요성과 그 가치, 목적 등을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모든 직업은 가치가 있다는 직업가치관의 변화와 직업 편견의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새롭게 이해하고 그 역할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태도가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본인의 의지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진로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동네직업지도 그리기 수업이 학습자들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전반적인 진로인식에 효과적이었다.

주제어 : 진로인식, 직업인식, 직업가치관, 직업편견, 동네직업그리기

**Abstract** We have developed art and career convergence class for career recognition through drawing a neighborhood job map. Thus, we want to expand the students' career recognition. 3 Classes were conducted in 16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5th to 6th. Through pre & post-questionnaire, and the interviews with the students' work, job recognition with job value and job prejudice,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attitude were analyzed. As follows. First, students' job recognition was expanded. The ability to identify the needs, values and purposes of jobs has improved. Changes in job values that all jobs are worth have occurred and job bias has changed. Second, the career attitude changed on the basis of self-understanding. Thus, in the context of deciding the job demanded by the society rather than the student's will, art and career convergence class was effective in career recognition.

**Key Words** : Career Recognition, Job Recognition, Job Values, Job Prejudice, Neighborhood Job Map

\*This paper is a summary of 'Study on Art Class for Vocational Recognition through the Drawing a Map about Jobs in Neighborhood : Focusing on fifth and sixth graders at elementary school' which is master 's paper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2017.

\*Corresponding Author : Yoon-Jung Huh(huh0900@kookmin.ac.kr)

Received November 28, 2018

Revised January 2, 2019

Accepted January 20, 2019

Published January 28, 2019

## 1. 서론

교육부의 2015년 학교 진로 교육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초등학생의 경우는 부모님,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인물, 학교 선생님의 순서를 보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부모님, 학교 선생님,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인물의 순서를 보였다[1]. 이렇듯 학생 개인의 진로선택 결정권이 부모님에게 집중된 결과를 통해 진로직업선택이 학생의 자발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기 힘들며 학생들에게 직업인식, 직업정보, 그리고 직업 가치관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35%의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한다. 즉 많은 학생이 자신의 꿈이나 진로보다는 더 좋은 대학을 위해 공부하며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업성적과 좋은 직업을 연결 지어 인식한다. 청소년의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 1위는 선생님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희망 직업의 71.8%가 소위 ‘희망 10대 직업’이라 불리는 교사, 의사, 연예인, 운동선수, 교수, 법조인, 경찰, 요리사, 패션디자이너, 프로그래머에 편중되어있다[2].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러한 선택은 중학교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10가지의 직업에만 70% 이상의 학생들이 쏠린다는 것은 직업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직업편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세세한 직업세계를 알려주고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진로교육과 미술교육을 융합하여 동네직업지도 그리기를 활용한 진로교육 수업지도안을 개발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진로인식단계에 있는 그들의 직업인식을 확장하여 진로탐색의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게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인식과 그 하위 개념인 직업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동네직업지도 그리기 수업안의 개발과 적용을 통하여 직업인식의 하위 개념인 직업 가치관과 직업편견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동네직업지도 그리기를 활용한 진로와 미술 융합수업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자기이해와 진로태도에 어떠한 긍정적인 교육적 의미를 얻을 수 있는지 논의한다. 교육부는 학생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적 변화에 대응

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진로 교육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으로 발표하였다[1]. 본 논문의 연구는 자발성과 능동성에 기반을 둔 교육부의 진로 교육의 목표 부합되어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의 진로교육의 초점은 자기이해를 중점에 둔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충분한 자기이해를 통한 진로탐색은 이상적인 과정이지만, 나에 대한 탐구에만 집중하면 그 결과가 현재 인기 있는 일부 유명 직업군이나 이미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개인의 다양성에 맞는 적절한 진로탐색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이 함께 교육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 안에서 직업의 역할은 무엇인지, 내 흥미와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는지, 내가 원하는 직업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지 스스로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 2.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이해

진로교육 있어서 초등학생의 진로교육은 전 생애의 역량교육의 시작으로써 그 책임과 역할이 크다. 바르디크(Bardickrhhk) 외 는 초등학교의 진로교육에 대하여 10대 청소년 초기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의사 결정과 진로 계획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초등학교 시기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3]. 임균택은 진로교육은 자기의 흥미와 특기 그리고 적성과 능력에 대해 이해하고, 모든 직업이 소중함을 아는 지식 위에 사회적 존재로서 일의 당위성과 타인과 협동하려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 하였다[4].

또한, 현대사회는 진로와 직업을 구별한다. 주변 인식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초등학생 시기의 학생들에게 진로는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활동이며 직업은 한 개인이 어떤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소득을 얻기 위해 참여하는 계속되는 활동으로 진로의 하위개념임을 교육해야 한다.

진로발달단계 이론이란 직업에 관련된 특성들이 신체와 정신의 발달과정처럼 아동 시기부터 발달하여 점차 성숙해져 간다는 개념의 이론이다. 이러한 진로발달의 과정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며 진버그(Ginzberg)는 그의 발달이론에서 한 개인의 직업 선택 결

정은 타협과정을 통해 환상적 직업선택 단계(fantasy period 6-10세), 시험적 직업 단계(tentative period 11-17세), 현실적 직업선택 단계(realistic period 18-22세)의 세 단계로 발달한다고 분류하였다[5]. 그에 따르면 초등학교 5, 6학년은 시험적 직업선택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자신의 흥미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우가 많고, 놀이가 발전하여 일 지향이 되면서 특정 활동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며 따라서 다양한 역할놀이는 직업세계에 대한 최초의 가치판단을 반영한다고 한다[6]. 이와 비슷하게 수퍼(Super)는 '진로 유형 연구'를 통해 생애 발달에 따른 진로 발달의 각 단계를 특징별로 구분하였는데 성장기(growth stage)는 출생에서 14세까지로 이 시기의 아동은 학교와 가정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타인에 대해 동일시를 시도하며 그를 통해 자아 개념이 발달된다고 한다[7]. 이 단계는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다. 아동은 점차 사회 참여와 현실 검증력이 발달하여 흥미와 능력을 중시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발달단계를 세분화하면 이 시기의 아동은 환상기(fantasy substage, 4-10세)와 흥미기(interest substage, 11-12세), 그리고 능력기(capacity substage 13-14세)로 나뉜다[8]. 즉 수퍼는 자아실현과 생애 발달의 과정 안에서 개인의 직업 발달의 과정을 보았고, 직업 자아 개념으로 자아 개념을 전환하였기에 중요한 직업연구의 근거가 된다.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5-6학년 시기의 아동의 진로발달 상태는 단순 흥미를 통해 직업관심을 갖는 시기라기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만의 특성이 발달하는 것과 같이 진로 발달도 함께 연계되어 시작된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진로교육은 진로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진로 탐색과 진로 준비가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3. 진로인식시기의 직업인식교육의 중요성

#### 3.1 진로인식의 이해

진로인식의 사전적인 의미는 개인의 생애 전반의 직업발달과정에 대해 지각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의욕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인식에 대해서 김형균은 진로인식은 직업의 존재 및 역할 등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잠정적 진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준비도의 개념이

라고 설명했다[9]. 김충기는 진로인식이란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진가와 진로 선택의 준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 하위영역을 자기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일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진로의사결정으로 나누기도 하였다[10]. 교육부에서 제시한 초등시기 진로교육의 하위영역은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4개의 대영역으로 분류된다[1].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진로인식 검사지를 활용했다. 진로인식의 하위영역으로 자기이해, 직업인식, 진로태도를 구성하였으며, 이는 김충기의 연구에서 제시된 하위영역과 유사하다.

진로인식이란 학생들이 흥미와 소질을 발견하고 직업에 대한 이해와 그 기능을 인식하도록 해주며, 일의 진가를 알고 스스로 준비해나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소양들을 갖추게 해 주는 것이다. 진로인식의 하위요소 중 직업인식은 직업편견과 직업가치관으로 나뉜다. 직업편견의 개념은 직업의 역할과 그 가치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따라서 소중하지 않은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부와, 남녀의 역할을 구분하는 여부에 따라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직업가치관의 요소는 일이나 직업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일의 가치를 돈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을 통한 행복과 성취감 그리고 보람을 가지게 하는 교육이 중요한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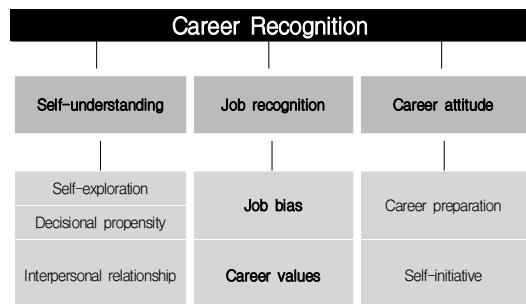


Fig. 1. Sub Region of Career Recognition[11]

#### 3.2 직업인식의 이해

직업은 한 개인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이루거나 경제적 소득을 얻기 위해 참여하는 계속되는 활동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시간과 보수에 관계없이 한 인간이 평생 동안 하는 일의 총체이다. 좁은 의미로의 직업은 반드시 경제적인 보상이 지급되는 행위이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육체적인 활동이나 정신적인 활동을 하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진로의식의 하위 영역인 직업 인식은 교육부의 진로교육의 대영역인 ‘일과 직업세계 이해’를 지칭한다[1]. 수퍼는 직업인식은 직업 선택의 일회적인 행위가 아닌 일생동안 개인이 차지하게 되는 지위의 연속성에 대한 선택이며 생애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라 하였다[12]. 따라서 직업인식 교육이란 흥미, 적성, 능력 등 개인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생에 걸쳐 진로를 현명하고 적절하게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일을 통해 자아실현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이다[13].

앞서 정리하였듯이 초등학교 시기의 진로발달 단계는 진로인식단계로 구분된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소양들이 발달해나가기에 이 단계에서는 직업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 직업인식교육의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주변을 인식하면서 진로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이들에게는 쉽고 가깝고 익숙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넓고 복잡한, 다양한 직업세계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즉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각종 직업을 근거로 한 직업 인식을 통해 각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계기를 얻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육의 목적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 또는 진로의 직업을 설계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있다. 즉 직업인식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인식하고 탐색하고 선택하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은 만족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자아실현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 4. 동네직업지도 그리기를 활용한 직업인식 미술수업의 설계 및 실제

##### 4.1 미술을 통한 직업인식 교육

교육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초등학교 5~6학년을 진로

교육의 체계에서 진로인식의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1].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그에 맞는 개념과 목적에 따라 진로인식의 향상을 위한 미술 수업을 설계하였다. 수업 대상이 진로발달단계에 들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기에 주변의 현실적인 직업세계를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네직업지도 그리기를 설계하였다.

##### 4.2 수업의 목표 및 설계

미술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과 꿈의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본다.

Table 1. Lecture schedule of class (60 minutes to 90 minutes per class)

Time	Subject	Aim & Activities	
1	My dream My career (Pre-class)	Aim	Realize the difference between dreams and careers and find out about dreams and jobs I want to become.
		Activities	-Think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dream and job. -Draw my dreams and hopeful jobs. -What skills do I need for my job? Think about it.
2	Our neighborhood job map	Aim	Find out what different jobs are in the area where I live.
		Activities	-I draw a map of the area I live in. -I explore the occupations that make up where I live. -Look up my dreams or occupations related to my career on the map.
3	My future I draw (After class)	Aim	I think about my dreams of future and changes in various professions that make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Activities	-Talk about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I think of my dreams to be a career in the future. -Think about how the jobs you want to become will change in the future. -I draw my dream of my future. * Imagine a new job that is not related to my dream now.

둘째, 동네직업지도 그리기를 통해 주변의 다양한 일과 직업세계를 탐색해 본다. 셋째, 나의 흥미나 꿈을 확장된 직업인식과 연계하여 현실성 있는 나의 진로를 설정해 본다. 수업은 초등학교 5~6학년 16명을 대상으로 교습소에서 3차시로 진행되었다. Table 1과 같이 각 차시는 진행되었다. 1차시는 꿈과 직업의 의미를 분리한 후 자신의 꿈과 삶의 목표가 있는지 그리고 하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그림을 그리며 자기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즉 진로인식에 있어서 자기이해의 영역에 해당

되며 본 연구의 사전평가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2차시 수업은 본 연구의 핵심 수업으로 직업인식 영역에 속한다. 동네에 있는 다양한 직업의 종류를 직접 인식하고 직업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인지 영역을 확인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무엇을 아는지 돌이켜 보고 관심 영역이나 꿈을 끊임없이 스스로 재설정하도록 도와준다. 3차시는 진로와 관련된 현재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소통한 뒤, 변화된 자신의 장래직업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그림내용에 대한 직업설계내용 중심의 인터뷰를 실시한다. 인터뷰는 연구자의 동기와 관점들로부터 아닌 연구 대상자 당사자와 대상 맥락의 성격으로부터 얻어지도록 설계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인식함으로 수업 이후에도 스스로 진로를 설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사후평가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 4.2 연구 방법

사전 사후 설문지와 수업 결과인 학생 작품과 인터뷰를 통해 연구 목적에 밝힌 바 직업인식의 하위 개념인 직업가치관과 직업편견, 그리고 자기이해와 진로태도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전 사후 질문은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초등학교 진로인식검사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Table 2와 같이 초등학교 진로인식검사 문항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 각 질문들을 사전 사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진로교육의 체계에서 진로인식의 단계로 분류되는 5~6학년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의 수업은 서울시 은평구의 A 미술교습소 정규 원생 5학년 8명과 6학년 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의 기간은 2017년 3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하였다.

Table 2.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recognition test questions

1	2		3
Self understanding	Job recognition		Career attitude
	Job value	Job prejudice	

### 5. 결과 분석

다음은 사전 사후 질문지와 작품을 토대로 직업인식의 영역에서 직업가치관과 직업 편견, 자기이해 진로태도 세 영역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 5.1 직업인식의 영역 확장

직업인식 영역은 두 가지 하위개념인 직업 편견과 직업가치관에 관한 설문지와 학생작품과 인터뷰를 통해 그 변화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직업인식의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 5.1.1 직업가치관의 변화

‘워크넷’의 초등학교 진로인식 검사에서 직업인식의 하위 요소인 직업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해 Table. 3의 1번과 2번의 사전 질문을 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이지만 돈을 잘 버는 직업과 돈을 잘 벌지 못 하지만 좋아하는 일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할 것 같나요?’ ‘돈과 관계없이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사전에는 16명 중에서 7명은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며 돈과 관계없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였다. 반면 9명은 돈을 택하겠다는 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후평가에서는 직업가치관과 직업편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16명 중에서 14명은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며 돈과 관계없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였다.

Table 3. Questions about change in job value

Job value	
Before	After
1. If there is a job that you do not like it but earns you money and a job that you like it but earns money well, which of the following will you choose?	1. If there is a job that you do not like it but earns you money and a job that you like it but earns money well, which of the following will you choose?
2. Can we live happily in the work itself, regardless of money?	2. Can we live happily in the work itself, regardless of money?
3. Some people like flying paper airplanes. Can I take a job by folding paper airplanes? How do I get a job?	3. Some people like flying paper airplanes. Can I take a job by folding paper airplanes? How do I get a job?

Table 3의 3번 질문인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날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

까요?’라는 질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직업이 될 수 없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평소 종이비행기를 접는 것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성적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한 후 세계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에서 은상을 탄 후 자신의 소질을 알게 된 사례를 소개한 후에 사후질문을 진행했다. 모든 학생들이 질문에 대해 종이접기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답하였다. 학생들은 종이비행기 접기로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하겠지만, 그보다는 안정적인 대기업 회사원 같은 직업이 더 낫다고 대답하였다.

다음은 학생 작품과 인터뷰 결과에서 직업 가치관의 변화의 예시이다. 가수가 되고 싶지만 노래를 잘 못해 안 될 것이라고 답하였던 여학생의 사례이다. Table. 6의 9번 사전 질문에서 희망 직업은 의사, 연예인,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가장 되고 싶은 직업은 선생님이라고 적었으며 1차시 수업에서 Fig. 2와 같이 선생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Fig. 2. A picture of one's own dreams in 1st class

그러나 사후 수업에 해당되는 3차시 수업에서는 Fig. 3과 같이 노래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1차시의 미래 모습과 3차시의 미래 모습이 달라진 학생들에게는 ‘왜 1차시의 미래 모습과 3차시의 미래 모습이 달라졌는가?’라는 인터뷰 질문이 진행되었다. 이 학생은 수업 사례로 보여준 ‘축제를 통해 시민 가수로의 활동을 하는 주부연극단 클럽’처럼 본업 외에 축제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고 답하였다. 이 여학생은 1차시 미래 모습을 그린 후 ‘그 직업이 무슨 일을 하고, 직업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되고 싶은가?’라는 인터뷰 질문에서 ‘잘하지 못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답이 없는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상반되게 동네직업지도 수

업 이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미래를 설정하며 돈이 되지 않아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지역축제의 공연으로 자신의 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직업인식교육의 아주 긍정적 효과라 해석될 수 있다. 이 밖에도 1차시 희망 직업으로 의사를 택했지만 본인은 국토대장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라고 하였던 학생은 3차시에서는 국토대장정에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할 것이므로 의사보다 적은 돈을 벌어도 국토대장정 안내자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직업지도 그리기를 통해 스스로 직업들이 왜 필요한가를 따져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구체화하는 결과를 통해 직업가치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Fig. 3. A picture of one's own dreams in 3rd class

### 5.1.2 직업편견의 변화

직업편견에 대한 사전 사후 질문으로 Table 4의 5, 6, 7번을 진행하였다.

사전 5번의 남녀 직업 구분에 대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은 평소 그들이 보아왔던 데로 구분하였다. 남자의 직업으로 환경미화원, 경비원, 집배원 그리고 공사 인부 등을 답하였고, 여자의 직업으로는 간호사, 요구르트 아줌마, 어린이집 원장님, 분식집 주인 등을 답하였다. 사후 6번 질문인 ‘학습자들이 대답한 남자의 직업을 가진 여자나 여자의 직업을 가진 남자가 없을까?’에 대하여 학생들은 ‘요즘은 여자 미화원도 있다더라’, ‘여자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면 집배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장님이 남자인 분식집도 있다’라는 답을 하면서 점차 ‘구분 지을 수 없다’, ‘애매하다’, ‘각자의 능력이 다르다’고 의견을 모았다. 스스로 구체적인 직업편견을 해소하고 직업가치관



서 직업인식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직업에 대해 대답하기 어려워하였던 모든 학생들이 직업지도를 그리며 쉽게 실생활과 직업을 연결하였고 스스로 대답하였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직업을 찾을 수 있었으므로 직업인식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Questions about number of jobs you know

Number of responses	0~5	6~10	11~15
Number of students	4	9	3

## 5.2 자기이해와 진로태도의 변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자기이해와 진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Table 7의 9번 사전질문을 진행하였다.

Table 7. Questions about the area of self understanding &amp; career attitude

Self understanding & Career attitude	
Before	After
9. What will you do after you become an adult?	9. What will you do after you become an adult?

Table 8. Answers about question of desired jobs

Desired job	teacher	designer	doctor, banker, writer, PD	other	total
Number of responses	12	6	3 each	1~2	48

1차시 첫 수업에서 수업 시작할 때 ‘성인이 되어 무엇을 하고 싶나요?’라고 물었고 그 결과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것과 비슷했다. 직업 3가지를 답하도록 했는데 Table 8과 같이 16명 중 12명의 학생들이 교사를 답했으며, 기타 직업으로는 판사, 검사, 작곡가, 요리사, 프로그래머, 변호사, 승무원, 아나운서, 게임 개발자 등을 답했다. 답에 따라 학생들에게 ‘그 직업이 무슨 일을 하고, 직업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되고 싶은가?’라는 인터뷰 질문을 진행했으나 그 대답은 모호했다. 5학년 여학생은 PD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질문에 대하여 ‘저는 가르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방송PD는 재미있을 것 같

아요. 방송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교사 대학에 가면 되지 않나요? PD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라고 대답했다.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한 5학년 남학생은 ‘저는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뭐, 컴퓨터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답을 했다. 직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이 없었고 그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탐색해보지 않은 답변을 했다.

다음은 동네직업지도 그리기 수업 이후에 똑같은 질문을 했다. 학생들은 Table 7의 9번 질문에 답변하고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구체화하는 수업을 3차시에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1차시와 2차시의 수업을 토대로 자신의 미래모습을 그리는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을 경험하였고 그 결과 총 16명의 학생 중에서 14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1차시의 장래희망 직업이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각하였다. 즉 학습자들은 흥미와 꿈을 실질적으로 현실의 직업과 연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중 9명의 학생들은 미래의 사회발전을 예측하며 자신만의 직업 또는 미래기술이 반영된 직업을 상상하여 표현했다. 동네직업지도를 그리면서 느꼈던 현실적인 필요성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상상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포털사이트로 검색하며 구체화하면서 1차시에서의 진로에 대한 막연함을 해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직업인식의 확장은 자기이해와 진로태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6. 결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네직업그리기 수업안의 개발과 적용은 학습자들의 진로인식에 효과적이었다. 사전 사후 설문지와 인터뷰 그리고 작품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에서 도출한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직업지도를 제작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직업세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은 직업인식의 확장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둘째, 직업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났다. 직업의 필요성과 그 가치, 목적 등을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직업들의 특성을 탐구하였고 이를 통해 직업의 요소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면서 그 결과를 자신의 진로설정에 활용하였다. 셋째, 모든 직업은 가치가 있다고 확립함으로써 직업 편견의 변화가 나타났다. 넷째,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태도가 변화하였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미흡하여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와 교사 및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14] 동네직업지도 그리기를 통해 주변 직업세계를 인식하는 수업이 학습자들의 직업인식에 효과적이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나아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전반적인 진로인식에 효과적이었다.

또한 대다수 기존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진로상담, 진로프로그램 등의 진로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었기에[15] 본 연구는 진로와 미술융합 수업의 실제적 사례로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의 현 상황을 파악해 보고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직업세계를 학습자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식되는지를 학생의 작품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증명하였다. 동네직업지도 그리기를 통한 직업인식 미술교육은 진로탐색을 학생들의 삶에 연계시킬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의 특성과 흥미를 반영한 새로운 직업에 대한 다양한 발상과 계획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과 직업편견, 그리고 직업가치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사전에 미리 조사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총 16명의 소수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만 총 3차시의 수업으로 진행하였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이해 영역에 치우친 진로교육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직업인식 교육의 필요성과 그 교육적 효과를 증명하였다. 직업인식 교육이 진로인식의 전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중학교의 진로탐색에 대한 예비과정으로 필요함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질 직업인식을 강화한 진로교육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미술교육을 통해 직업인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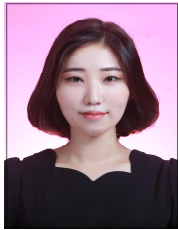
- [1] Ministry of Education. (2016). *2015 School career education goals and standards of achievement*, Ministry of Education.
- [2] Ministry of Education. (March 1, 2017). *Korea Career Development Institute*, Career Net. <http://www.career.go.kr>
- [3] G. W. Seo. (2012). *The Role of Images in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in Germany and Korea: Image - Focusing on text relation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 A. thesis, Seoul.
- [4] I. T. Lim. (2000). *A Study on Career Recognition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Hongik University, M. A. thesis, Seoul.
- [5] I. H. Ann. (2010). *The Effects of Reading Discussion on Career Development Program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ogang University, M. A. thesis, Seoul.
- [6] M. J. Lee. (2006). *Effects of activity-centered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career matura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Busan University of Education, M. A. thesis, Busan.
- [7] N. Y. Hwang. (2009). *The Effect of the Job Search-oriented Reading Counseling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and Achievement Motivation Improvement*.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 A. thesis, Gongju.
- [8] W. J. Ru. (2011). *Percep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 profession of scientifically-talented students and normal students at elementary school*. Daegu University of Education, M. A. thesis, Daegu.
- [9] H. G. Kim. (2014). A study on career recogni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udies in Practical Arts Education*, 20(4), 237-257.
- [10] C. G. Kim. (2000). *Life guidance career education*. Education Science History.
- [11]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arch 1, 2017). *Employment information system*, Worknet. <http://www.work.go.kr>
- [12] B. H. Kim. (2012). *The role of personality trai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sexuality, gender stereotypes and career alternatives perceived*

by elementary students. Hongik University, Doctoral thesis, Seoul.

- [13] M. Y. Ru. (2006). *Percep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 profession of scientifically-talented students and normal students at elementary school*. Kunkook University, M. A. thesis, Seoul.
- [14] B. S. Park & S. B. Yang. (2017). The Effect of Parent's Neglect on Adolescents' Career Identity in the Times of Converg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3), 139-146.
- [15] K. H. Jung & C. S. Sung. (2017).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dividual Environmental Factor and Individual Trait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179-187.

김 지 현(Kim, Ji Hyun)

[학생회원]



- 2016년 8월 :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 관심분야 : 미술교육
- E-Mail : 31519@naver.com

허 윤 정(Huh, Yoon Jung)

[정회원]



학원 박사

- 1991년 2월 :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 1994년 2월 :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석사
- 2000년 2월 :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산업디자인 석사
- 2014년 2월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미디어아트, 매체미학, 미술교육, 게임
- E-Mail : huh0900@kookmin.ac.kr